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공동제작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분석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진학교육

목 차

»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분석 총평 I	1
» 국어영역 분석	7
» 수학영역 분석	23
» 영어영역 분석	45

총 평

-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분석 총평 |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1. 국어영역 문항 분석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어 학생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기존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서 영역은 모든 지문이 수능 연계 교재에서 핵심 소재 및 개념을 반영한 지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실제 시험 시간 운용 및 페이스 조절에서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 지문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독서 이론과 인문 지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지문 역시 개념 간 수식적 상관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독해 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 지문의 경우 상반된 두 이론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는 12번 문항과 구체적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는 13번 문항이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며 변별력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연계를 통한 진입 장벽은 낮았으나, 장문의 선지 속 논리적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해결했는지가 관건이었다고 보인다.

문학 영역은 출제된 8개 작품 중 4개 작품이 수능 연계 교재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 자체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갈래복합과 고전소설 일부 문항에서는 작품 간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인물의 의도와 행동 양



상을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실제 오답률을 살펴보면 갈래복합 22번 문항이 57.1%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전소설 29번(41.7%), 갈래복합 27번(38.8%), 고전시가 33번(3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작품의 표면적인 내용 파악을 넘어, 시어와 시구, 사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화법과 작문 영역은 기존의 출제 기조와 정형화된 틀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가 평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익숙한 유형의 지문들이 출제되었으며,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무난하게 해결 가능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초고와 연결 짓는 40번 문항과 복합적인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을 찾는 45번 문항의 경우, 선지의 진술 구조와 관계 분석을 필요로 하여 수험생들에게 까다롭게 다가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제한 시간 내에 선지의 진술 구조와 논리적 오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비교·대조할 수 있었는지가 고득점 확보의 핵심이었다고 보인다.

언어와 매체 영역은 개념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이를 실제 예문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별력이 형성되었다. 특히 37번 문항은 예문에 나타난 여러 문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매체 영역은 비교적 익숙한 유형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여러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종합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II. 수학영역 문항 분석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최근 평가원 시험에 비해 다소 낮게 출제된 시험이었다. 초반과 중반 문항은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과 계산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기출 학습이 충분한 학생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위권 이상 학생들에게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단순히 쉬운 시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80점대까지

는 비교적 수월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88점 이상 상위권 구간에서는 공통과목 21번·22번과 선택과목 후반부 문항에서 변별이 이루어졌다. 즉, 평균 난이도는 낮았지만 만점권 진입을 위해서는 낮은 조건을 해석하고 복합적인 사고를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공통과목은 지수·로그, 수열, 극한, 미분, 적분, 삼각함수 등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13~15번은 정적분, 함수의 대칭성, 삼각함수의 주기성, 함수의 부호 변화 등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지만, 조건을 정확히 읽으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 단답형 문항 역시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며, 특히 20번은 풀이 과정이 상당 부분 제시되어 있어 반드시 득점해야 하는 문항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문항은 공통과목 21번과 22번이다. 21번은 함수의 변화와 그래프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으며, 22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경우 분류와 규칙 탐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특히 22번은 특정 단원에 국한되지 않은 사고력을 요구하며, 전 단원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선택과목에서는 후반부 문항의 변별력이 두드러졌다. 확률과 통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28번 카드 뒤집기 문항에서 경우의 수적 사고가 요구되었고, 30번 역시 배열 조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미적분은 기본 개념 문항이 많았으나 28~30번에서 역함수, 수열과 급수, 합성함수의 구조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기하는 벡터와 이차곡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며, 후반부에서는 정의와 성질을 실제 도형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종합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상위권 변별 문항은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공통 22번과 선택과목 후반부 문항들은 단순 계산보다 조건 해석과 구조 파악 능력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에서는 이번 시험의 낮은 난이도에 안주하기보다 공통과목 전 단원의 핵심 개념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 선택과목의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조건을 수식, 그래프, 도형, 경우 분류 등으

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훈련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영어영역 문항 분석

이번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존 출제 기조를 충실히 유지하며 신유형 없이 안정적으로 출제되었다. 평가원과 EBS는 이번 시험이 지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1학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9.8%의 N수생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34번(82.5%), 31번(79.6%), 40번(71.4%), 37번(71.3%) 등 오답률 70%를 상회하는 문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시험은 지문의 소재와 문장 구조의 복잡도 측면에서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완화되어 지문 자체의 가독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하고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다수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지문의 복잡성보다는 선지의 매력도를 극대화하여 상위권 변별력을 정밀하게 확보하고자 한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돋보인다.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듣기 영역은 새로운 소재나 유형의 등장 없이 기존의 정형화된 틀과 안정적인 출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지난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담화 속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체감 난이도 역시 평이하야, 수험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독해 영역의 초반부에 배치된 대의 파악 유형(20번, 22~24번) 또한 대체로 지문 속 근거와 선택지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핵심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했다면 안정적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법과 어휘의 적절성 판단 유형(29~30번) 문항 역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다. 29번 문항은 수험생들이 자주 접했을 관계대명사절을 활용하여 출제되어 차분히 문장 구조를 파악했다면 수월했을 것이다. 30번 문항 또한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요지를 파악하기 쉬웠으므로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바탕으로 맥락을 읽어냈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항상 높은 진입 장벽이었던 함축 의미 추론(21번),

빈칸 추론(31, 34번), 글의 순서 파악(36, 37번), 문장 삽입(39번) 유형은 모두 오답률 TOP 7 안에 대거 포진하며 실질적인 변별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난도 문항들은 선택지 판단 단계에서 미세한 논리적 뉘앙스를 정교하게 가려내야 하도록 설계되어 상위권을 촘촘하게 분리하는 등급 구분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선택지를 읽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함축 의미 추론(21번)과 빈칸 추론 중 31번 문항은 선지의 매력도가 두드러진 대표적인 문항이었다. 31번 문항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주관적인 배경지식이나 통념에만 의존하여 접근할 경우 오답으로 빠지기 쉬웠으며, 철저히 지문에 근거하여 저자의 내재적 의도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역량이 요구되었다. 반면, 빈칸 추론 중 33~34번 문항은 이번 시험을 통틀어 가장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을 것이다. 33번은 중심 내용을 관통하는 구체적 사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반면, 34번은 미학적 가치의 변동성이라는 추상적 서사 속에서도 지문의 중심 요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 채 글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논리적 지구력이 정답 도출의 핵심 관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글의 순서(36~37번) 및 문장 삽입(38~39번) 유형의 문항 또한 단순한 단형 문장의 해석 능력을 넘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적인 연결성을 파악해야 했다. 즉,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게 명시적인 담화 표지어에 의존하기보다는, 글의 서사적·논리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맥락적 단절을 찾아내는 거시적 안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시험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문에서 반복되는 주요 어휘나 표현을 포함하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문 속 명시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답 도출 훈련이 필요하다. 빈칸 추론 31번과 34번 문항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대략적인 요지만 파악한 채 감에 의존하여 선지를 고르면 평가원이 정교하게 설

제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학습 시 주관적 배경지식이나 통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지문에만 근거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실전적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밀한 독해를 위해서는 지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정독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시험장에서의 시간적 압박감 때문에 지문을 대강 읽은 채 키워드 중심으로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은, 결국 선지 간의 혼동을 유발하고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오히려 더 큰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지문의 맥락을 단 한 번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선택지로 진입하는 ‘선 이해 - 후 풀이’ 전략을 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문제를 풀고 난 이후 복습 과정에서 각 선택지가 정답과 오답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선택지를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선지’, ‘너무 지엽적인 선지’,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선지’ 등으로 철저히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면, 선지의 매력도가 극대화되는 수능 실전 상황에서도 감점 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국어영역



1. 독서

독서 영역은 다음과 같은 지문들이 출제되었다.

- 독서 이론 - SQ3R 읽기 전략 (1~3번)
- 인문 - (가)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견해,
(나) 19세기 이후 민권 논의에 대한 역사적 흐름 (4~9번)
- 사회 -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10~13번)
- 과학·기술 - 라플라스 식의 원리와 적용 사례 (14~17번)

4개의 독서 지문이 모두 연계 교재 지문과 연계되어 이를 다뤘던 수험생들이라면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 지문의 정보량이나 난이도가 적절했으며, 202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정보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단순 독해를 통해 정답 도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문항별 분석

○ (1~3번) 독서 이론 - SQ3R 읽기 전략

지문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EBS 수능특강의 첫 부분에 수록된 ‘SQ3R 읽기 전략’을 소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5단계 활동 순서와 각 단계에 대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술되어 수험생들이 느꼈을 체감 연계율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문항은 사실적 독해를 요구하는 세부 내용 파악(1번) 문항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예시 추론(2번) 문항으로, 모두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면 선지를 판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된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항인 3번(3점) 문항의 경우, 지문의 3문단에 제시된 ‘훑어보기’와 ‘질문하기’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보기>의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대조가 잘 이루어졌다면 무난하게 정답을 도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 (4~9번) 인문 - (가)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견해, (나) 19세기 이후 민권 논의에 대한 역사적 흐름

인문 주제 통합 지문으로,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 변화 및 실학자 이익의 견해를 다룬 (가)와, 19세기 말 이후 민권에 관한 논의 및 형평 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다룬 (나) 지문이 제시되었다. 해당 지문 역시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의 전개’를 다룬 지문의 핵심 제재를 반영하고 있어,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지문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문항의 경우 (가)와 (나) 각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5번, 7번)과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어휘 문항(9번)은 지문의 융합 없이 단독 독해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가)와 (나)의 전개 방식을 분석하는 문항(4번) 역시 지문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면 무난하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6번 문항의 경우 두 학자의 입장에서 상대의 견해에 대해 상호 비판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각 인물이 지닌 견해를 명확히 이해해야 선지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문항이다. 고난도 문항인 8번(3점) 문항의 경우 <보기>의 외적 준거와 지문 속 학자들의 견해를 다각도로 비교해야 했다. 특히, 선지 후반부에 배치된 내용을 파악하여 인과 관계 분석 및 정보 간 모순 여부 등을 따져 연결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0~13번) 사회 -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 여부 논쟁을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풀어낸 사회 지문이다.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을 다룬 지문에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문 초반부가 익숙하게 느껴진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의 해결 방안에 대해 풀어낸 연계 교재와 달리,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이를 법적 규제 및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연결 지어 심화 확장하였다. 개념을 공유하더라도 지문이 전개되는 방식과 맥락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트이며, 연계 지문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문항의 유형 파악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출제된 문항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항(10번)과 세부 내용의 이해 문항(11번)의 경우, 선지의



의미 구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문과의 대조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2번 문항의 경우 상반된 두 이론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으며, 고난도 문항인 13번(3점)의 경우 구체적 사례에 지문의 이론을 다각도로 적용하는 복합적 정보 처리가 요구된 문항으로 EBSi 기준 71.3%의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변별이 이루어진 문항이었다.

○ (14~17번) 과학·기술 - 라플라스 식의 원리와 적용 사례

라플라스 식의 원리와 적용 사례 및 잉크 분사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오네소 르게 수에 대해 다룬 과학·기술 지문이다.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폐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에 대해 다룬 지문 속 라플라스 법칙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 지문의 특성상 생소한 용어가 다수 등장하며, 개념 간의 크고 작음, 정비례와 반비례 등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은 있었으나,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반복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리하여 정답을 도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번 문항의 경우 3문단의 ㉠을 바탕으로 세 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액체 방울의 내·외부 압력 차이가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수식적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거나, 공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원리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지 판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문항이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배치된 16번 문항(3점) 역시, 4문단~6문단 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할수록 ~하다’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답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고난도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8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 보 기 > —</p> <p>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p> </div> <p>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p> <p>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p> <p>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p> <p>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p> <p>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p>○ <보기>의 서양의 노예제 해방 담론을 다룬 주장과 지문 속 실학자, 개화파, 독립 협회 등의 관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 묻는 문항이다. 각 사상가가 전제한 인간관이 제도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p> <p>○ ⑤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보기>에 제시된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문학적 성취일 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p> <p>○ 그러나 노예 출신 작가가 이뤄낸 ‘성취’라는 키워드에만 매몰되어 이를 ‘사회 제도 변화’ 및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연결 지어 해석했기 때문에 정답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p>○ 복수의 사상가가 등장하는 인문 지문 독해 시, 각 인물이 주장하는 세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개별 인물이 내세운 핵심 주장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p> <p>○ 선지 분석 시 익숙한 단어에 휩쓸리지 않고 해당 키워드가 어떠한 맥락과 성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비교·대조해야 한다. 특히 선지 내용이 길고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 선지 전반부의 전제 조건이나 사실 관계가 후반부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인과 관계의 모순 여부를 검증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p>

<p>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12번</p>	<p>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p>
<p>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p> <p>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p> <p>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p> <p>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p> <p>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p>○ <u>상반된 두 이론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공통 전제를 도출</u>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p> <p>○ 보통 관점이 대립되는 문항이 출제될 경우 차이점에만 초점을 맞춰 독해하기 쉬우나, 해당 문항은 각 관점의 <u>차이점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u> 두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공통 전제를 분석해야 했다.</p> <p>○ EBSi 기준 ④번 선지의 선택률이 정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사전 및 사후 시점과 그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지문과 선지에 제시된 유사 어휘에만 휩쓸려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p>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p>○ 상반된 관점을 다룬 내용이 제시될 경우, 두 관점의 대립 구조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각 이론의 핵심 논지와 <u>차이점 뿐만 아니라 공통의 전제나 가치관 등을 의식적으로 찾고 연결하는</u> 연습이 필요하다.</p> <p>○ 선지 분석 시 '사전/사후', '플랫폼 사업자/정부'와 같이 <u>문장의 시점과 주체를 교묘하게 비틀어 구성한 매력적인 오답</u>에 넘어가지 않도록, 의미 단위에 따라 문장을 끊어 읽으며 서술어와 주체를 대조 분석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p> <p>○ 지문 속 어휘가 선지에 그대로 노출될 때, 이를 단순히 연결 지어 판단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유사 어휘를 활용한 매력적인 오답 구성을 경계하고, 선지 전체의 인과 관계나 진위 여부를 <u>지문 내 명확한 근거를 찾아 철저히 검증</u>하는 연습이 필요하다.</p>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13. ㉓, ㉔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라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㉓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㉓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㉔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 문항 분석

○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헌법재판소 다수·소수 의견의 법적 취지를 **구체적 상황과 연결** 짓는 사고 과정이 요구되었다.

○ EBSi 기준 ②번 선지의 선택률이 정답 선택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선지들의 선택률 또한 고르게 분산되어 수험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 큰 혼란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 ②번 선지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법률이 규정하는 규제 대상인 ‘사업자’와 <보기> 속 식품 판매자 ‘갑’이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임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의 지위를 행위가 아닌 ‘식품 판매자’라는 명칭에만 매몰되어 ‘사업자’로 구분하였다면, ‘갑’은 법적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대비전략

○ 법이나 규정 관련 사회 지문의 경우 특정 키워드에 매몰되지 않고, 지문 속 법률이 명시하는 **‘주체’와 ‘객체’를 중심으로** 논리의 적용 가능 및 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사회적 상식이나 도덕적 배경지식에 의존하여 선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철저히 **지문 내 제시된 조건과 규정만을 근거로 내용을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하나의 문항에 다량의 정보나 이질적 상황이 제시될 때 조건을 혼동하여 해석하기 쉽다. 선지의 구조가 복잡할 경우 문장의 전후를 나누어 논리적 모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각 사례가 이질적일 경우 사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2. 문학

문학 영역은 다음과 같은 지문들이 출제되었다.

- 현대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갈래복합 - (가) 김명인, 「그 나무」 / (나) 김기택, 「나무」 / (다) 정지용, 「노인과 꽃」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홍길동전」
-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들어~」 / (다) 이정보, 「입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전반적으로 작품 이해와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현대소설과 고전시가는 비교적 익숙한 소재와 문항 유형으로 출제되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반면 갈래복합 지문은 현대시와 수필을 함께 읽으며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했으며, 고전소설은 사건 전개와 인물의 행동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가. 문항별 분석

○ (18~21번) 현대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농촌 마을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 출제되었다. 작품의 내용과 사건 전개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공간적 배경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인물의 행동과 반응에 드러난 심리를 구체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 (22~27번) 갈래복합 - (가) 김명인, 「그 나무」 / (나) 김기택, 「나무」 / (다) 정지용, 「노인과 꽃」

현대시 두 편과 수필 한 편이 결합된 갈래복합 지문이 출제되었다. 작품의 표면적인 내용 파악은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작품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작품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각 작품의 표현과 시어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 (28~31번)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홍길동전」

고전소설의 대표 작품이 출제되어 작품의 내용과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물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인물의 행동과 의도를 사건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했다. 또한 인물이 사용한 속임수의 의도와 방법, 결과를 파악하며 사건 전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 (32~34번)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들어~」 / (다)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드러내는 작품들이 출제되었다. 작품의 정서와 표현 방식을 파악하는 익숙한 유형이 중심을 이루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다만 시어의 기능과 문맥적 의미를 작품의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표현이 지니는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나. 고난도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22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p>○ 현대시 두 편과 현대 수필이 결합된 갈래복합 지문에서 세 작품의 공통된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오답률 57.1%를 기록하며 이번 문학 영역에서 가장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p> <p>○ 작품의 표면적인 내용이나 개별 시구의 의미 파악에 머물지 않고, 각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인 ‘상황의 대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했다.</p> <p>○ (가)의 ‘늦된 나무’와 ‘여느 꽃나무’, (나)의 나무가 ‘생장하던 시기’와 ‘겨울 추위로 얼었던 시기’, (다)의 ‘청춘’과 ‘노년’ 등 각 작품의 중심 시어와 상황이 형성하는 대립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작품의 주제 의식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했다.</p>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p>○ 갈래복합 지문에서는 개별 작품의 내용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작품들의 중심 소재와 표현 방식, 화자의 태도 등을 비교, 대조하며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p> <p>○ 선지에 제시되는 ‘상황의 대비’, ‘공간의 이동’, ‘계절의 흐름’ 등 문학의 주요 개념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떤 시어와 상황을 통해 형상화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한다.</p> <p>○ 작품을 읽을 때 중심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연결하여 이해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p>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29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은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② ㉡는 ㉠과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③ ㉡는 ㉠과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④ ㉠과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⑤ ㉠과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p>○ 고전소설 「홍길동전」에서 <u>사건이 전개되는 두 공간인 ㉠과 ㉡의 특징과 갈등 양상을 비교하는 문항</u>이다. 오답률 41.7%를 기록하며 고전소설 영역에서 가장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p> <p>○ 작품의 전체 줄거리나 배경지식에 의존하기보다, 제시된 <u>지문을 바탕으로 각 공간의 기능과 인물 간 대립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u>되었다.</p> <p>○ 특히 ㉡에서 길동과 을도국 왕 사이의 갈등이 ‘격서’를 통해 표면화되는 양상 등, 사건의 전개 방식과 갈등의 구체적 양상을 <u>지문 속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판단</u>해야 했다.</p>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p>○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의 이동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u>공간에서 발생하는 핵심 사건과 갈등 양상을 구조적으로 정리</u>하며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p> <p>○ 선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만 주목하기보다, <u>지문에 제시된 공간의 특징과 사건의 전개 양상을 본문의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확인</u>해야 한다.</p>





화법과 작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문들이 출제되었다.

- 발표 - 초 관련 전통 기구 소개 (35~37번)
- 대화, 건의문 - 녹지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 제안 (38~42번)
- 초고, 고쳐쓰기 -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소개 (43~45번)

기존의 출제 기조와 정형화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문항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문에 근거하여 선지를 소거해 나갔다면 무난히 고득점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문항별 분석

○ (35~37번) 발표 - 초 관련 전통 기구 소개

선인들의 초 이용 및 관련 전통 기구를 소개하는 발표 담화 지문이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자료 활용의 적절성, 청중 분석의 발표 내용 반영 여부 등 기존의 출제 기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없어 수험생들이 무난하게 정답을 도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8~42번) 대화, 건의문 - 녹지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 제안

본 지문은 생태 동아리의 공모전 아이디어를 위한 대화인 (가)와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을 제안하는 건의문 초고인 (나)가 결합된 화법과 작문 융합 세트이다.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가)를 활용하여 발화 내용 파악(38번)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참여자의 의사소통 양상(39번)을 묻고, (나)를 활용하여 표현 전략(41번)과 고쳐쓰기 점검 및 조정 내용(42번)을 묻는 전형적인 틀을 따르고 있다. 또한 40번 문항은 (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가 (나)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융합형 문항이다. 변별력을 위해 배치된 40번 문항(3점)의 경우 대화 속 [A] ~ [D]의 발화 내용과 40번 문항에 제시된 메모 조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건의문 초고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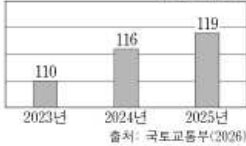

조건과 실제 반영된 초고 기술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지 않았다면,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지 못해 반복 독해로 시간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43~45번) 초고, 고쳐쓰기 -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소개

지난 3월·5월 학력평가 및 202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지문의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글쓰기 계획의 초고 반영 여부를 묻는 문항(43번)과 조건을 반영한 내용 생성하기(44번),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45번) 모두 기존의 정형화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었다. 다만,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 45번 문항(3점)의 경우 EBSi 기준 오답률 1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 해당 문항은 제한된 짧은 시간 내 여러 개의 자료를 해석하고, 각 자료를 어느 문단에 배치하여 추가 및 보완해야 하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선지 속 인과 관계의 오류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높은 오답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난도 문항 분석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45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data-bbox="181 555 778 1384">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7. 보고서 자료</p> <p>7-1. 고속열차 이용객 추이 (단위: 백만 명)</p>  <p>7-2. 고속열차 구동 방식별 제원 비교</p> <table border="1" data-bbox="496 663 756 786"> <thead> <tr> <th>구분</th> <th>동력집중식</th> <th>동력분산식</th> </tr> </thead> <tbody> <tr> <td>가속 성능 (300km/h 도달 시간)</td> <td>316초</td> <td>212초</td> </tr> <tr> <td>좌석 수 (1편성 기준)</td> <td>379석</td> <td>515석</td> </tr> </tbody> </table> <p>출처: 국토교통부(2024)</p> <p>나. 신문 기사</p> <p>□□공사는 고속열차○○에 동력분산식을 적용하고 운전실 객차에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p> <p>운전실 객차(동력 없음) 동력 객차 운전실 객차(동력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동력분산식 고속열차</p> <p>고속열차○○은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바닥 패널이 바닥에서 떠 있는 형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p> <p>다. △△학술지 논문</p> <p>우리나라와 같이 역간 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은 철도 노선 운영에는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다. 또한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는데, 동력 객차에 축중(동력차의 바퀴가 선로를 누르는 중량)을 분산시켜 최대 축중이 가벼운 동력분산식은,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집중식과 비교할 때,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p> </div> <p>① 7-1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 수를, 고속열차 이용객의 증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로 1문단에 보강한다.</p> <p>② 나을 활용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내용을, 동력분산식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기술의 예시로 5문단에 추가한다.</p> <p>③ 다을 활용하여,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의 최대 축중이 무거워 열차 주행 중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선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2문단에 보강한다.</p> <p>④ 7-2와 나을 활용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p> <p>⑤ 7-2와 다을 활용하여, 정차 횟수가 많을 때 동력분산식의 가속 성능이 동력집중식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 동력분산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3문단에 보강한다.</p>	구분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가속 성능 (300km/h 도달 시간)	316초	212초	좌석 수 (1편성 기준)	379석	515석	<p>□ 문항 분석</p> <p>○ 초고, 고쳐쓰기 세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유형이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복합 자료 활용 문항이다.</p> <p>○ 지문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소개하는 평이하고 간결한 내용이였다. 다만, 선지가 단순 자료 확인을 넘어, 자료의 세부 정보를 초고의 특정 문단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강해야 하는지 정교한 분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다고 판단된다.</p> <p>○ 특히, 지문의 ‘동일 편성 기준 좌석 수 증가’를 선지의 ‘편성 증가’로 연결 지어 인과 관계를 잘못 해석했다면, 선지를 한 번에 판별하지 못하고 문항을 맴돌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대비전략</p> <p>○ 선지에서 지문이나 자료에 사용된 핵심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후 맥락과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출제자는 익숙한 일부 단어만 보고 정답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매력적인 오답을 구성할 확률이 높다.</p> <p>○ 선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검증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료의 핵심 내용과 지문의 내용, 둘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한 번에 무리하게 파악하려다가 정답 판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선지 분할을 통해 문항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p>
구분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가속 성능 (300km/h 도달 시간)	316초	212초								
좌석 수 (1편성 기준)	379석	515석								



4.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다음과 같은 지문, 요소들이 출제되었다.

- 언어 - 음운의 변이음과 형태소의 이형태, 교체 양상
- 언어 - 문장 성분 및 문법 요소의 이해
- 언어 -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류와 실현 양상
- 언어 -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및 파생, 합성 양상
- 매체 - 기상 정보 수집 장비에 관한 라디오 방송
- 매체 - 세계 기록 유산에 관한 온라인 화상 회의

언어 영역은 음운, 형태소, 문장 성분, 중세 국어, 단어 형성 등 다양한 문법 개념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문법 요소를 실제 예문과 언어 자료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매체 영역은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소재로 출제되었다. 비교적 익숙한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여러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 대조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가. 문항별 분석

○ (35~36번) 언어 - 음운의 변이음과 형태소의 이형태, 교체 양상

음운의 변이음과 형태소의 이형태를 중심으로 음운 및 형태소의 교체 양상을 다룬 지문이 출제되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변이음과 이형태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체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 (37번) 언어 - 문장 성분 및 문법 요소의 이해

부사어의 기능, 동작상, 연결 어미 등 다양한 문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개별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문에 나타난 여러 문법 요소의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복합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해야 했다.



○ (38번) 언어 -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류와 실현 양상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류와 실현 양상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종결 어미와 보조사의 쓰임을 바탕으로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구별해야 했으며, 중세 국어 문법 요소를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 (39번) 언어 -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및 파생, 합성 양상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파생어와 합성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단어 형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합성과 파생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 (40~43번) 매체 - 기상 정보 수집 장비에 관한 라디오 방송

기상 정보 수집 장비를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이 출제되었다. 방송의 진행 방식과 정보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했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44~45번) 매체 - 세계 기록 유산에 관한 온라인 화상 회의

세계 기록 유산을 주제로 한 온라인 화상 회의가 출제되었다. 화상 회의의 진행 과정과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나. 고난도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37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p> </div> <p>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p>○ ㉠~㉣의 예문을 바탕으로 <u>관형사형 어미,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 대등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동작상, 필수적 부사어 등 다양한 문법 요소의 실현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u>하는 문항이다.</p> <p>○ 각 선지에 제시된 예문을 분석하며 여러 문법 요소의 실현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하나의 조건만 잘못 판단해도 오답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p> <p>○ 개별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u>여러 문법 요소를 실제 예문에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u>되었다.</p>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p>○ <u>문장 성분과 문법 요소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예문에서 해당 요소를 찾는 연습</u>을 해야한다.</p> <p>○ 다양한 예문에 나타난 <u>문법 요소의 실현 양상을 비교, 분석</u>하고, 각 예문이 해당 문법 개념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p>



II. 수학영역



1. 단원별 출제 문항 배점 구성

과목	단원	2점	3점	4점	합계	
기 본 형	수학 I	I.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	16	10, 20	4문항(13점)
		II.삼각함수		6, 8	14	3문항(10점)
		III.수열		3, 18	12, 22	4문항(14점)
	수학 II	I.함수의 극한과 연속		4	11	2문항(7점)
		II.미분	2	5, 7, 19	21	5문항(15점)
		III.적분		17	9, 13, 15	4문항(15점)
합계		2문항	10문항	10문항	22문항(74점)	
선 택	확률과 통계	I.경우의 수	23	25, 27	30	
		II.확률		24, 26	28, 29	
		III.통계				
	합계		1문항	4문항	3문항	8문항(26점)
	미적분	I.수열의 극한	23	25	29	
		II.미분법		24,26,27	28, 30	
		III.적분법				
	합계		1문항	4문항	3문항	8문항(26점)
	기하	I.이차곡선		24, 26	28,29	
		II.평면벡터	23	25, 27	30	
		III.공간도형과 공간좌표				
	합계		1문항	4문항	3문항	8문항(26점)
합계		3문항	14문항	13문항	30문항(100점)	

*단원별 배점당 문항 출제분포 현황 및 분포내용 '번호' 생략





2. 과목별 출제 문항 총평

과목		과목별 문항 총평
공통	수학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각함수의 대칭성 및 주기성을 이용하여 상수함수와의 교점(홀수 개)을 추론하거나(14번), 지수·로그함수의 빈칸 추론에서 기하적 직관보다 대수적 연립 역량을 강하게 요구하는(20번) 등 교과 개념의 본질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됨. 수열 단원(12번, 22번)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식의 구조를 파악해 연산을 최적화하거나, 다소 생소한 점화식을 수형도와 곱의 법칙 등 확률과 통계의 아이디어로 해석해야 하는 고도의 융합적 추론 문항이 배치됨. 특히 22번은 최고난도 문항으로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방향으로 출제됨.
	수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작정 계산하기보다는 정적분 차이 함수의 대칭성을 기하학적으로 활용하거나(13번), 함수의 극한값 존재 여부를 대수적으로 명확히 해석하는(11번) 등 실전적 훈련도를 점검하는 문항들이 출제됨. 절댓값이 포함된 정적분 부등식 수식을 대수적 계산이 아닌 '부호 변화(x축 교차)'라는 기하학적 의미로 번역하여 평행이동 관점과 엮어내는 15번 문항이 출제되어 수학적 독해력이 변별 요소로 작용함. 21번 문항과 같이 독립변수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함수와 본래 함수의 교점을 관찰하고, '불연속점이 1개'라는 조건으로부터 극소점에서의 '접하는 상황'을 도출해 내는 고도의 움직이는 그래프의 추론 문항이 출제됨.
선택	확률과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27번은 순열, 여사건의 확률, 이항정리, 함수의 개수 등 기본 개념 중심으로 출제됨. 특히 여사건을 활용한 경우의 수 계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전체 경우에서 제외하는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함. 28번은 카드 뒤집기 상황의 비정형 문항으로, 확률 계산보다 흠잡성 조건을 파악하고 경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능력이 요구됨. 선택과목 내 주요 변별 문항으로 기능함. 29~30번은 조건부 확률, 중복조합 및 배열 조건을 결합한 문항으로 구성됨. 조건 해석과 경우 분류 능력이 중요했으며, 단순 공식 적용보다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상위권 변별 요소로 작용함.
	미적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27번은 등비수열의 극한, 음함수 미분법, 급수, 삼각함수, 매개변수 미분 등 핵심 개념과 계산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출제됨. 기본 개념 학습이 충실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음. 28번은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항으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계산력보다 함수의 구조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됨. 29~30번은 수열과 급수의 조건 해석,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 및 극값 판단을 다루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됨. 조건 분류와 함수 관계 분석 능력이 주요 변별 요소로 작용함.
	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26번은 벡터, 포물선, 직선의 각, 타원의 접선 등 기본 개념과 공식 적용 중심으로 출제됨. 교과서 수준의 개념 이해와 계산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됨. 27~28번은 벡터 내적의 기하적 의미와 타원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항으로 출제됨. 단순 계산보다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변환하고 거리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됨. 29~30번은 포물선과 쌍곡선의 정의, 벡터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이차곡선의 정의를 실제 도형 상황에 적용하고 길이 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이 주요 변별 요소로 작용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 I 12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12.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_n\}$이</p> $2a_1(a_1+a_3) = 5a_2(a_1+a_2) = 20$ <p>을 만족시킬 때, $a_1 \times a_6$의 값은? [4점]</p> <p>① $\frac{1}{27}$ ② $\frac{1}{9}$ ③ $\frac{1}{3}$ ④ 1 ⑤ 3</p>	<p>□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비수열의 구조와 대수적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식을 첫째항 a와 공비 r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기본기를 묻는 문항 - 식을 정리하여 $2a^2(1+r^2) = 5a^2r(1+r)$ 이 나왔을 때, $a \neq 0$임을 이해하여 양변을 a^2으로 나누어야 함 - 이를 통해 $3r^2 + 5r - 2 = 0$이라는 공비 r에 관한 이차방정식을 도출한 뒤, “공비가 양수”라는 발문을 이용하여 $r = \frac{1}{3}$을 구하는 논리력이 필요 • 식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계산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항 a의 값을 구하기 위해 $2a^2\left(1 + \frac{1}{9}\right) = 20$을 풀면 $a^2 = 9$가 나옴 - 이때 $a = \pm 3$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개별 값을 구하려는 번거로움을 겪기 쉬우나, $a_1 \times a_6 = a^2 r^5$임을 파악하면 a^2의 값만 구하여 불필요한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음 <p>□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발문 및 조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정 주어진 미지수를 다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식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구할 것인지 ‘계산의 설계도’를 그리는 훈련이 필요 - 문제를 읽을 때 수식 외의 한글 조건(양수, 자연수 등)에 동그라미 표시 등을 해두는 실전 습관을 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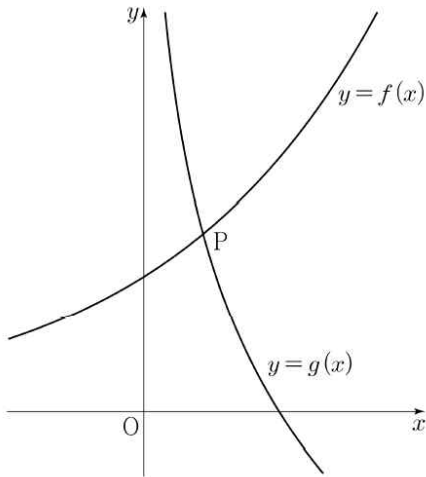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 I 14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14. 양수 a와 자연수 b에 대하여 $0 \leq x \leq 2$일 때 x에 대한 방정식</p> $\left(\cos(b\pi x) - \frac{1}{2}\right)\left(a\cos(b\pi x) + \frac{a+2}{2}\right) = 0$ <p>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5이다. $a+b$의 값은? [4점]</p> <p>① 6 ② $\frac{13}{2}$ ③ 7 ④ $\frac{15}{2}$ ⑤ 8</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성 및 상수함수와의 교점 개수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방정식을 해석하여 $\cos(b\pi x) = \frac{1}{2}$ 또는 $\cos(b\pi x) = -\frac{a+2}{2a}$ 라는 상황으로 분리할 줄 아는 것이 첫 단계 정의역 $0 \leq x \leq 2$에서 주기가 $\frac{2}{b}$인 \cos 그래프가 b개의 완전한 주기를 그린다는 그래프 모델링 능력 필요 홀수 개의 실근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b개의 주기가 그려지는 동안 상수함수와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한 주기당 0개, 1개(접할 때), 2개(교차할 때) 중 하나임을 이해 $\cos(b\pi x) = \frac{1}{2}$에서는 한 주기당 무조건 2개의 근이 발생하므로 $2b$개의 짝수개의 실근을 갖는 것을 이해 따라서 $\cos(b\pi x) = \frac{a+2}{-2a}$ 와의 교점이 홀수 개가 나오고, 이는 정확히 극소점 또는 극대점에 접하여 주기당 1개의 근만 발생하는 상황이어야 함을 추론하여 $a=2, b=5$를 구함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점(접선, 극값)을 우선적으로 의심하는 실전적 직관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풀 때 극대·극소, 접선과 같은 특이 상황을 우선적으로 모델링하여 역추적하는 실전 훈련도 필요 그래프 개형으로 접근하는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1주기(4칸)' 그래프를 박스 형태로 그리며 상수함수 선을 상하로 움직이는 등의 그래프 개형으로 전급하는 연습을 체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 I 20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0.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b 에 대하여
두 함수 $f(x) = b^x$ 과 $g(x) = -\log_b x$ 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의 좌표를 (α, β) 라 하자.



다음은 $\alpha\beta^3 = 1$ 일 때, 직선 OP의 기울기 m 에 대하여
 $g(m)$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 O는 원점이다.)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alpha, \beta)$ 는 두 곡선
 $y = f(x), y = g(x)$
위의 점이므로, 두 양수 α, β 가
 $\beta = b^\alpha, \beta = -\log_b \alpha$
를 만족시킨다.
 $\alpha\beta^3 = 1$ 이고 $\alpha = \log_b \beta, \beta = -\log_b \alpha$ 이므로
 $3\alpha - \beta = 3\log_b \beta + \log_b \alpha = \log_b(\alpha\beta^3) = 0$
이다. 그러므로 $m = \frac{\beta}{\alpha} = \boxed{\text{(가)}}$ 이다.
 $\beta^4 = m\alpha\beta^3 = m$ 이므로 $\beta = \boxed{\text{(나)}}$ 이다.
 $b = \alpha^{-\frac{1}{\beta}}$ 이고 $\alpha = \frac{\beta}{m}$ 이므로
 $g(m) = -\log_b m = \frac{\beta}{\log_m \alpha} = \frac{\beta}{-1 + \log_m \beta} = \boxed{\text{(다)}}$
이다.

위의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 q, r 이라 할 때,
 $(p \times q \times r)^2$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문항 분석

- **지수·로그함수의 교점 상황에 대한 대수적 연립과 빈칸 추론**
 - 최근 기출에서는 두 함수 간의 회전 이동이나 역함수 대칭성 등 기하적 직관을 묻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당 문항은 박스 내의 흐름에 따라 좌표를 식에 대입하여 미지수를 소거하는 ‘대수적 역립 역량’ 평가
- **로그의 성질과 밑 변환 공식 활용**
 - 박스 안의 흐름에 따라 밑 변환 공식을 통해 주어진 $g(m)$ 의 값을 구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핵심

□ 대비전략

- **빈칸 추론 문항에서 전후 문맥 파악**
 - 빈칸 추론 문항을 풀 때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새롭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가 제시한 식의 앞뒤 인과관계에만 집중하여 해결하는 요령이 필요
 - 수식이 복잡해도 지수법칙과 밑 변환 공식, 진수의 거듭제곱 처리 등을 연습하여 이용하는 계산 지구력 함양
- **함수에서의 ‘교점’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임을 기억하여 방정식 세우기**
 - 기하적 직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좌표를 두 함수식에 모두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맞추어 정리해내는 대수적 훈련이 필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 I 22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2. 수열 $\{a_n\}$은 $a_1 = 1$, $a_3 = 4$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p> $a_{2n} = a_n + 1,$ $a_{4n+3} = a_{4n+1} = a_n + 4$ <p>를 만족시킨다. $a_k =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형도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수열의 추론 문항들이 a_n에서 a_{n+1}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전진 또는 역추적의 구조였다면, 해당 문항은 a_n이라는 하나의 항에서 a_{2n}, a_{4n+1}, a_{4n+3}이라는 항들이 동시에 결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 $a_k =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a_1 = 1$ 또는 $a_3 = 4$에서 +1 연산과 +4 연산은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최고난도 문항 • 경우의 수 아이디어와 배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이라는 값에서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9의 간격을 메꿔야 하므로, +1를 1번, +4를 2번 사용하는 등의 조합을 찾아내야 함. 이는 확률과 통계 교과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이디어와 일치 - 유의해야 할 점은 +4 연산과 관련된 점화식이 $a_{4n+1} = a_{4n+3}$이므로 1번 선택할 때마다 항의 번호(k)가 2개씩 새롭게 나오므로, 경우의 수에 곱의 법칙에 의해 $\times 2$를 해야 함을 인지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화식의 규칙성 파악 및 융합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의 규칙성 추론'이자 '경우의 수 세기'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열 문항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져가는 조건이 주어지면 선택 과목에 관계 없이 수형도 그리기, 조합의 수 계산 등과 같은 확률과 통계 교과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융합적 사고 함양 - 낯선 형태의 수열이 주어질 때, 수형도를 그려가며 초기항부터 어떤 연산이 개수를 몇 배로 불리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훈련 필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 II 11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11. 일차함수 $f(x)$에 대하여</p> $\lim_{x \rightarrow a} \frac{f(x+2)}{x(f(x)-3)}$ <p>의 값이 $a=0$일 때 존재하고 $a=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f(4)$의 값은? [4점]</p> <p>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수의 극한값 존재 여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식에서 $a=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므로 분자도 0으로 수렴하여 $f(2)=0$임을 인지 - $a=3$일 때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함을 파악하여 $f(3)=3$임을 도출하는 논리성 필요 • 미정계수 결정과 일차함수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2)=0$, $f(3)=3$을 통해 직선의 기울기가 3임을 파악하고 함수식 $f(x)=3(x-2)$를 완성하는 과정 이해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의 기본 성질 및 미정계수 결정 원리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의 대수적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훈련이 필수적임 -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한글 표현을 마주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수렴값을 0과 비교하는 식 세우기 연습 반복 필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II 15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15. 상수항이 0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int_p^{p+3} |f(x)| dx \neq \left| \int_p^{p+3} f(x) dx \right|$ 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 의 값의 범위는 $0 < p < 3$ 이다.

(나) $\int_0^3 |f(x)+q| dx \neq \left| \int_0^3 (f(x)+q) dx \right|$ 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q 의 값의 범위는 $0 < q < 1$ 이다.

$f(6)$ 의 값은? [4점]

- ① 18 ② 21 ③ 24 ④ 27 ⑤ 30

□ 문항 분석

•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기하적 최적화 구하기

- 조건 (가)를 통해 적분 구간 $[p, p+3]$ 에서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가 x 축을 교차하여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기하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됨

• 삼차함수 그래프의 추론

- $f(0)=0$ 이고, $p < 0$ 일 때 부호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x=0$ 에서 접하는 반면, $x=3$ 에서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므로 $f(x)=ax^2(x-3)$ 임을 이해

- 조건 (나)를 통해 y 축 방향으로 q 만큼 평행이동하였을 때,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q 의 범위가 $0 < q < 1$ 을 파악

- 이를 통해 그래프가 y 축 평행이동할 때 x 축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순간은 극솟값이 x 축에 닿을 때, 즉 극솟값이 -1 이어야 함을 추론

□ 대비전략

• 그래프 개형 그리기 연습

- 절댓값이 포함된 적분식을 무작정 구간을 나누어 수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다항함수의 개형을 퍼즐 맞추듯 조합해보는 연습이 필요

• 그래프의 y 축 평행이동에 따른 x 축과의 교점 변화 관찰

- 함수식에 상수를 더하거나 뺄 때, 이를 y 축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며 극대·극소 지점이 x 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악, 이를 통해 실근의 개수 및 부호 변화 구간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요구됨



<p>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II 19번</p>	<p>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p>
<p>19. 곡선 $y = x^3 - 5x^2 + 3x + 6$ 위의 점 $(1, 5)$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3점]</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함수를 활용한 접선의 방정식 도출 및 대수적 기초 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항함수를 미분하여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기본 역량임을 인지 - 기울기를 구한 뒤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y절편을 찾아내는 일련의 대수적 연산 과정이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필요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법 공식 및 접선에 대한 기본 개념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판별, 속도와 가속도 등 도함수의 기본적인 개념 및 기하적인 의미를 묻는 문항들이 ‘고민’의 영역이 아닌 ‘연습’의 영역임을 기억하여 충분히 연습 - 특히 미분 후 상수항 처리나 부호 실수 같은 계산에서의 실수를 조심하며 평소 기본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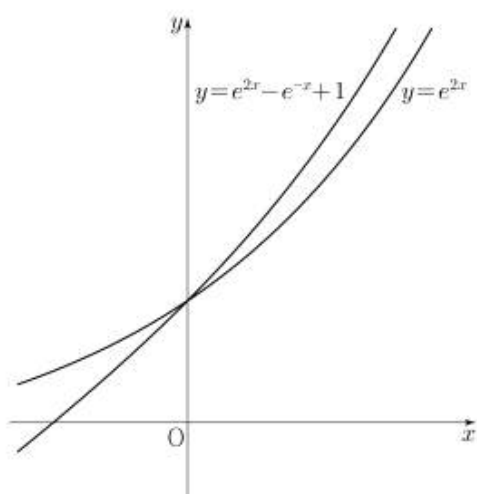


<p>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수학II 21번</p>	<p>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p>
<p>21.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p> $f(\alpha) = f'(t) - 4t^2 + 4$ <p>를 만족시키는 실수 α의 최댓값을 $g(t)$라 하자. 함수 $g(t)$가 $t=3$에서만 불연속이고 $g(3)=1$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4점]</p>	<p><input type="checkbox"/>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와 불연속성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방정식의 우변을 t에 대한 이차함수 $h(t)$로 치환하고, t의 변화함에 따라 $y=h(t)$라는 상수함수가 움직일 때, 삼차함수와의 교점 중 가장 큰 x좌표가 $g(t)$임을 이해 - 교점의 좌표 $g(t)$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삼차함수 $f(x)$의 극솟값과 관련됨을 파악 • ‘불연속점이 단 1개’라는 조건에 대한 기하적/대수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속점이 단 1개만 존재한다고 한 것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h(t)$의 최댓값(꼭짓점)이 삼차함수 $f(x)$의 극솟값에 정확히 접하고 다시 내려감을 이해하는 기하적 통찰력 요구 - 함수 $h(t)$의 대칭축이 $t=3$임을 통해 $h(3)$의 값이 $f(x)$의 극솟값과 같으며, $g(3)=1$이라는 조건이 곧 삼차함수의 극소가 $x=1$임을 깨닫는 대수적 추론 필요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추론 및 특이점 관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변수 t의 변화에 따라 직선이나 도형이 움직일 때, 원함수와의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문항이 최근 출제 트렌드임을 인지 - 특히 접점, 극점, 점근선 등의 특이점을 기준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따져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각적 연습이 필수적 • 단원 간 개념의 유기적 연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수의 연속성, 이차함수의 대칭성, 삼차함수의 극값 등 서로 다른 단원의 개념들이 한 문제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조건이 어떻게 미정계수를 확정 짓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 필요





5. 미적분 주요 문항 분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미적분 28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8. 좌표평면에서 양수 t에 대하여 직선 $y=t$가 두 곡선 $y=e^{2x}-e^{-x}+1$, $y=e^{2x}$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 하자. 점 P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선 $y=e^{2x}$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f(t)$, 점 Q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선 $y=e^{2x}-e^{-x}+1$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t)$라 할 때, 두 함수 $f(t)$, $g(t)$는 구간 $(0, \infty)$에서 미분가능한 함수이다.</p> <p>$\lim_{t \rightarrow 1} \frac{9f'(t)-4g'(t)}{t-1}$의 값은? [4점]</p> <p>① 1 ② 3 ③ 5 ④ 7 ⑤ 9</p> 	<p><input type="checkbox"/> 문항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대응 관계 해석 및 역함수 관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과 곡선의 교점을 이용하여 함수를 새롭게 정의한 문항으로, 함수식을 직접 구하려 하기보다 함수가 어떤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지 해석하는 접근이 중요함. - 두 함수가 서로 반대 방향의 대응을 나타내는 구조에서는 역함수 관계를 의심하고 확인하는 접근이 효과적임. • 역함수 미분법과 고계도함수의 활용 가능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서 도함수의 변화율이나 극한값을 묻는 경우에는 이계도함수 이상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함. - 단순 계산보다 함수 간 관계를 이용하여 필요한 미분 정보를 얻는 전략이 중요하게 활용되는 문항임.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수의 대응 관계와 역함수 구조 파악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점, 같은 x좌표, 같은 y좌표 등의 조건으로 정의된 함수는 먼저 어떤 대응을 나타내는지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새롭게 정의된 두 함수가 등장하면 합성함수 관계를 확인하여 역함수 여부를 판단하고, 복잡한 계산보다 함수 간 구조를 활용하는 전략을 익혀야 함. • 역함수 미분법과 극한의 도함수 해석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x))=x$ 관계를 이용한 역함수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을 충분히 연습하여 도함수 및 이계도함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극한식은 미분계수의 정의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고, 복잡한 식도 도함수 또는 이계도함수의 값으로 전환하여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미적분 29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9.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_n\}$ 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b_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_1 = b_1, a_4 = b_2$

(나) 어떤 자연수 k 에 대하여 $a_k = b_3$ 이다.

급수 $\sum_{n=1}^{\infty} b_n$ 이 수렴할 때, $\left| \sum_{n=1}^{\infty} (b_n \cos(a_n \pi)) \right|$ 의 최솟값을 m 이라 하자. $10 \times m$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문항분석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연결 조건 해석

- $a_1 = b_1, a_4 = b_2, a_k = b_3$ 조건을 이용하여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야 함.
- 등비수열의 연속된 세 항이라는 점에서 등비중항 관계를 활용하여 핵심 관계식을 도출하고, 두 수열의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함.

• 수렴 조건과 정수 조건을 활용한 최솟값 판단

-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양수 조건을 이용하여 공비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해야 함.
- 또한 $\cos(a_n \pi) = (-1)^{a_n}$ 을 이용해 a_n 의 홀짝성을 분석하고, 급수의 부호 구조를 비교하여 최솟값이 되는 경우를 판단해야 함.

□ 대비전략

• 수열 조건 해석과 관계식 정리 연습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함께 주어지면 각 수열을 따로 계산하기보다, 서로 연결되는 조건을 식으로 정리하여 관계식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함.
- 특히 등비중항 관계와 수렴 조건, 양수 조건 등을 활용해 가능한 경우를 빠르게 줄이는 훈련이 중요함.

• 홀짝성 분석과 경우 비교를 통한 최솟값 판단

- $\cos(n\pi) = (-1)^n$ 을 이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급수를 부호가 있는 급수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
- 또한 가능한 경우를 비교하며 부호 구조와 급수의 형태를 분석하여 최솟값이나 최댓값을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미적분 30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는

$$g(x) = \sqrt[3]{x(f(x))^2}$$

이다. 함수 $g(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고

$x = \frac{19}{7}$ 와 $x = 3$ 에서 극값을 가질 때, $f(5)$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문항분석

•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 조건 해석

- 세제곱근이 포함된 합성함수에서는 내부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미분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하다는 조건은 내부식의 근의 위치와 중복도를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
- 특히 근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함수 구조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함.
- 미분가능성 조건을 통해 삼차함수의 인수 구조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극값 조건을 활용한 함수 구조 분석

- 특정한 두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조건은 도함수의 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따라서 극값 조건을 도함수의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함수의 계수와 구조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함.
- 삼차함수와 합성함수가 결합된 형태에서는 함수식을 일반형으로 두고, 극값의 위치를 이용해 계수를 결정하는 접근이 효과적임.
- 극값의 위치와 함수의 형태를 연결하여 조건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함.

□ 대비전략

• 조건을 식으로 변환하는 연습

- 미분가능성, 극값과 같은 조건은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함수식을 결정하는 핵심 단서임.
- 주어진 조건을 도함수의 근, 함수의 인수 구조, 계수 사이의 관계로 바꾸어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함수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

- 고난도 문항에서는 복잡한 계산에 앞서 함수의 형태와 조건들의 연결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함.
- 특히 합성함수에서는 내부식의 구조와 근의 성질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6. 확률과 통계 주요 문항 분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28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8.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 6장이 있다. 각 카드의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숫자 1, 6이 적힌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숫자 2, 3, 4, 5가 적힌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p> </div> <p>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k가 홀수이면 k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고, k가 짝수이면 k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는다.</p> </div> <p>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은? [4점]</p> <p>① $\frac{19}{162}$ ② $\frac{13}{108}$ ③ $\frac{10}{81}$ ④ $\frac{41}{324}$ ⑤ $\frac{7}{5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 뒷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 앞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3 앞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4 앞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5 앞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6 뒷면</div> </div>	<p><input type="checkbox"/> 문항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에 따른 카드 상태 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비교하여 각 카드가 만족해야 하는 변화 조건을 파악하는 문항임. - 주사위 눈에 따라 여러 카드의 상태가 동시에 변하므로, 카드별 변화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요구됨. - 카드가 뒤집히는 횟수와 최종 상태의 관계를 해석하여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경우의 수 분류 및 조건 해석 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 계산 자체보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과정이 핵심인 문항임. - 주사위 결과가 카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야 함. - 여러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누락이나 중복 없이 경우를 세는 능력을 평가함. - 규칙의 구조와 대칭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 변화와 흠잡성 분석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뒤집기와 같은 상태 변화 문제에서는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를 비교하여 각 대상이 홀수 번 또는 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28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수 번 변화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변화 횟수의 흠잡성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 • 경우의 수 분류 및 실전 대응 전략 - 복잡한 확률 문항은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를 기준으로 경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습이 중요함. - 시험에서는 분류 기준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문항에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문항을 먼저 해결한 뒤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29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9.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다섯 개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때, 이 다섯 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일 확률은 $\frac{q}{p}$이다. $p+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p>	<p><input type="checkbox"/> 문항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확률에서의 조건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개의 주사위 눈의 수의 곱이 홀수라는 조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핵심인 문항임. -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 경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함. - 조건부 확률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새로운 표본공간을 결정하므로, 조건이 가능한 결과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함. - 단순히 확률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사건의 형태로 해석하는 개념 이해가 요구됨. • 경우의 수를 활용한 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공간 안에서 추가 조건인 ‘눈의 수의 합이 15’인 사건을 분석해야 하는 문항임. - 가능한 눈의 값이 제한된 상황에서 합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능력이 필요함. -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가능한 조합을 찾고, 서로 다른 주사위를 구별하여 배열하는 과정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함.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확률의 표본공간 설정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확률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표본공간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함. - 특히 주사위 문항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새로운 표본공간으로 설정하는 습관이 중요함. • 경우의 수 분류 및 계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이 일정한 경우를 찾을 때는 가능한 조합을 먼저 분류한 뒤, 각 조합의 배열 수를 계산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함. - 경우를 셀 때는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조합과 배열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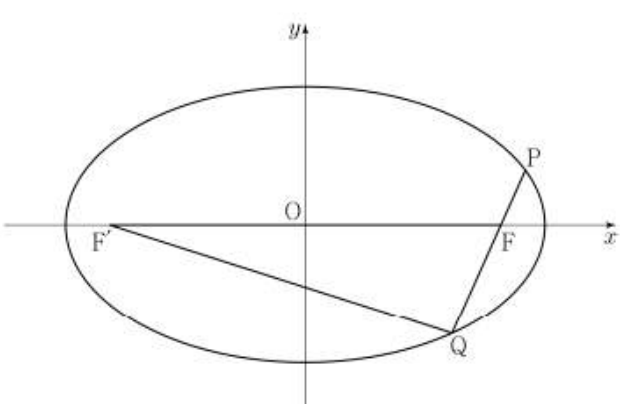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30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30. 노란색 공 4개, 보라색 공 4개, 검은색 공 4개가 있다. 이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4점]</p>	<p><input type="checkbox"/> 문항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하지 않는 조건의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공의 순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색깔별 배치 구조를 분석 - ‘노란색과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직접 나열로 처리하기 보다, 검은색 공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어 구조화 -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대상을 먼저 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문항 해결의 핵심 개념임. • 중복조합을 활용한 배치 경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은색 공을 배치하면 생기는 여러 공간에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을 분배하는 상황 - 이때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으므로, 각 공간에 몇 개의 공이 들어가는지를 세는 중복조합 활용 - 노란색 공이 들어가는 공간과 보라색 공이 들어가는 공간이 겹치면 두 색이 이웃할 수 있으므로, 공간 선택과 분배 조건을 함께 고려 <p><input type="checkbox"/> 대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조건을 공간 배치로 해석하는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건은 기준이 되는 대상을 먼저 배치한 뒤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복잡한 배열 문제에서는 전체를 나열하기보다 조건을 만족하는 배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 • 중복조합 활용 및 경우 검토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색 공처럼 구별하지 않는 대상을 여러 공간에 배치하는 상황에서는 중복조합을 활용하고, 공간의 개수와 분배 조건을 해석 - 계산 후에는 경우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주어진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함.





7. 기하 주요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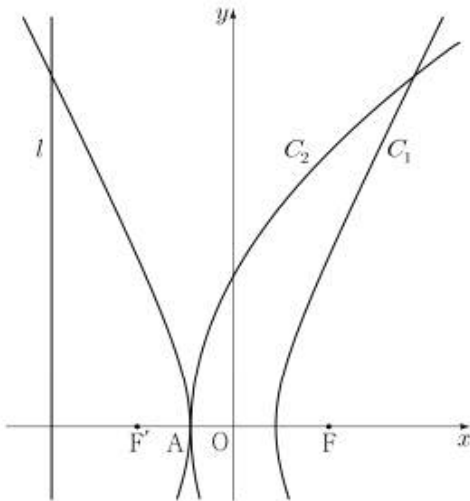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기하 28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28. 두 초점이 $F(c, 0), F'(-c, 0)$ ($c > 0$)인 타원 $\frac{x^2}{a^2} + \frac{y^2}{b^2} = 1$ 이 있다. 이 타원 위에 있는 제1사분면 위의 점 P와 이 타원 위에 있는 제4사분면 위의 점 Q에 대하여 점 F가 선분 PQ 위에 있고</p> $\frac{\overline{PF}}{\overline{QF}} = \frac{1}{2}, \quad \frac{\overline{PF}}{\overline{FF'}} = \frac{\sqrt{6}}{16}$ <p>이다. 삼각형 $FF'Q$의 넓이가 $4\sqrt{5}$일 때, b^2의 값은? (단, a와 b는 양수이다.) [4점]</p> <p>① $\frac{13}{2}$ ② 7 ③ $\frac{15}{2}$ ④ 8 ⑤ $\frac{17}{2}$</p> 	<p>□ 문항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의 정의와 길이 비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해 길이 관계를 해석하는 문항임. - 주어진 길이 비율을 활용하여 여러 선분의 길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고, 타원의 정의와 연결해야 함. - 표준형 공식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 관계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함. • 넓이 조건과 도형 성질의 종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이용해 길이 뿐 아니라 각도나 높이 관계까지 해석해야 함. - 길이 비율, 타원의 정의, 넓이 조건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코사인법칙, 넓이 공식, 피타고라스 관계식을 활용해 b^2을 구하는 문항임. <p>□ 대비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곡선의 정의와 길이 관계 해석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형 속 거리 관계를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특히 타원에서는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성질과 주어진 길이 비율을 활용하여 선분의 길이를 문자로 표현하고 관계를 단순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 • 넓이 조건과 복합 조건의 구조화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형의 넓이 조건이 제시되면 넓이 공식, 코사인법칙 등을 활용하여 길이와 각도 정보를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기하 29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29. 두 초점이 $F(3, 0)$, $F'(-3, 0)$ 인 쌍곡선 C_1 이 있다.
쌍곡선 C_1 의 두 꼭짓점 중 x 좌표가 음수인 점을 $A(-a, 0)$ ($a > 0$)이라 하고, 초점이 F 이고 꼭짓점이 A 인 포물선을 C_2 , 이 포물선의 준선을 l 이라 하자. 쌍곡선 C_1 과 포물선 C_2 가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면 위의 점의 y 좌표와 쌍곡선 C_1 과 직선 l 이 만나는 점 중 제2사분면 위의 점의 y 좌표가 같을 때, a^2 의 값이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 문항 분석

- 이차곡선의 정의를 활용한 거리 관계 해석
 - 쌍곡선과 포물선이 함께 제시된 문항으로, 쌍곡선의 초점 거리 차와 포물선의 초점·준선 거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 초점, 꼭짓점, 준선, 교점 사이의 거리 조건을 활용하여 두 이차곡선의 정의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관계식을 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됨.
- 교점 조건을 이용한 방정식 설정
 - 두 교점의 y 좌표가 같고 서로 다른 사분면에 위치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도형의 대칭성과 거리 관계를 해석해야 함.
 - 포물선과 쌍곡선의 정의를 각각 식으로 표현한 뒤 이를 결합하여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a^2 의 값을 구하는 문항임.

□ 대비전략

- 이차곡선의 정의를 활용한 거리 관계 해석 연습
 - 쌍곡선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 차, 포물선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정의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함.
 - 여러 이차곡선이 함께 등장하는 문항에서는 각 곡선의 정의를 공통 교점에 적용하여 거리 관계를 식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기하 29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p>연결하는 연습이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점 조건의 도식화 및 복합 이차곡선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점의 위치, 같은 y좌표, 준선의 위치 등을 그림에 표시하며 거리 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함. - 타원·포물선·쌍곡선이 함께 등장하는 문항은 정의 해석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점·준선·교점 조건을 활용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분석하며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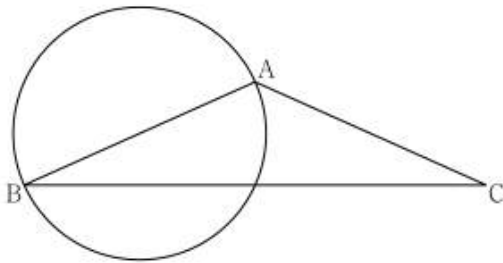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기하 30번

문항 분석 및 대비전략

30. 좌표평면에서 $\overline{AB} = \overline{AC} = 2$, $\angle CAB > \frac{\pi}{2}$ 인 이등변삼각형의 세 꼭짓점 A, B, C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 D가

$$\overrightarrow{BA} \cdot \overrightarrow{BC} = \overrightarrow{CB} \cdot \overrightarrow{CD}, \quad 2\overrightarrow{AC} \cdot \overrightarrow{AD} = \overrightarrow{DA} \cdot \overrightarrow{DB}$$

를 만족시킨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움직이는 점 X에 대하여 $\overrightarrow{DX} \cdot \overrightarrow{BC}$ 의 최댓값을 M , 최솟값을 m 이라 하자. $|M \times m| = \frac{q}{p}$ 일 때,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 문항 분석

• 벡터 내적의 기하적 의미 활용

- 여러 벡터 내적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좌표 계산보다 길이, 끼인각, 정사영의 의미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함.
- 이등변삼각형의 대칭성,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 지름을 갖는 원 위의 점 등의 조건을 벡터 내적과 연결하여 도형의 구조를 파악해야 함.

• 움직이는 점에 따른 최댓값·최솟값 분석

- 내적 조건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그 범위를 분석해야 함.
- 벡터 내적, 원의 성질, 대칭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길이의 곱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판단

□ 대비전략

• 벡터 내적의 기하적 해석 능력 강화

- 벡터 내적을 좌표 계산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길이의 곱, 정사영, 끼인각의 코사인 등 기하적 의미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도형 조건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내적식을 길이 관계나 각도 관계로 변환하여 이해하는 훈련이 중요함.

• 원의 성질과 최댓값·최솟값 문제 해결 전략

- 지름을 이용한 원에서는 직각삼각형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점에 따른 거리 관계 변화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함.
- 최댓값·최솟값 문항에서는 고정된 요소와 변하는 요소를 구분하고, 내적 조건·원의 성질·대칭성을 연결하여 도형 전체의 구조 속에서 값을 판단하는 훈련이 중요함.

III. 영어영역



1. 주요 유형별 문항 분석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가. 함축 의미 추론 유형(21번)

지난 3월과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매우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였다.

박쥐의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지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지문 자체의 독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교하고 구성된 오답 선택지와 더불어,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에 ‘give up(포기하다)’ 표현이 쓰여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정답으로 골라야 했다. 이처럼 지문의 맥락과 구문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어법·어휘의 적절성 판단 유형(29~30번)

두 유형 모두 지난 3월과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비교적 낮은 오답률을 기록하며 평이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

어법의 적절성 판단 유형은 ▲부사의 동사구 수식, ▲관계대명사 what과 타 관계대명사 용법의 차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to부정사, ▲분사구문 내 주절의 주어와 분사 간의 능동·수동 관계, ▲소유격 대명사의 선행사 수 일치로 구성되었다. 수능 영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핵심 문법 요소들이 출제되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휘의 적절성 판단 유형은 ‘revealing’, ‘clear’, ‘significant’, ‘thick’, ‘time-consuming’ 과 같이 출제 빈도가 높고 친숙한 어휘들로 구성되었다. 지문의 요지만 명확히 파악했다면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문장 간의 대조적인 논리 구조를 포착했다면 흐름상 맥락에 어색한 어휘를 수월하게 가려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빈칸 추론 유형(31~34번)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학술적 소재를 다루고 있어 지문의 대략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택지 판별



단계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다수 배치되어 미세한 논리적 뉘앙스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역량이 실질적인 변별 요소로 작용하였다.

31번은 유의어로 쓰이던 ‘conservationist(보전주의자)’와 ‘preservationist(보존주의자)’의 미묘한 개념 차이를 다룬 문항이었다. 자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보존주의자와 달리, 보전주의자는 변화를 관리하고 복원하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이들이 복원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실용적 활용(‘use’)에 있으므로, 인간이 의도하고 희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desired’를 정답으로 도출했어야 한다.

32번은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의 특성을 다룬 글로, “입술이 침묵하더라도 손가락 끝으로 조잘거린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여 비언어적 행동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33번은 감정과 욕망이 인간의 인지를 왜곡한다는 인지심리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공포에 질린 겁쟁이와 욕망에 눈먼 연인의 직관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는 비교적 수월하였으며, 감정적 투자가 클수록 인지가 편향된다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답안의 근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34번은 예술 작품이 가진 미학적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본질과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집가는 미래에도 그 작품이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집에 임한다는 내용이였다. 미학적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술이 지문 전반에 걸쳐 길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에도 수집가는 예술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을 자신이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다”라는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라. 글의 순서 파악·문장 삽입 유형(36~39번)

간접 쓰기 영역은 정교한 문맥적 흐름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6번은 식물의 방어 기제와 진화적 상호작용을 다룬 지문이다. 개별 식물이 전적으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적 전환점을 담은 (C)를 기점으로, 화학 물질 방출을 통해 동종 식물과 협력하는 방어 기제를 설명하는 (B)가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물과 곤충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The back-and



-forth(공방전)’ 이자 ‘진화적 대화’ 로 정의하고, 서로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진화의 본질적 속성을 다룬 (A)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마무리된다.

37번은 구경거리(‘spectacle’)의 속성과 그 창작 전략을 다룬 문항이다. 주어진 글의 화두를 (C)에서 문화적 전략으로 해설하며 ‘새로운 문학 작품 창작’ 이라는 비유를 도입한다. 이어 (A)에서 시작부의 ‘By extension’ 을 활용해 앞선 문학적 비유를 구경거리 창작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며, 관습과 혁신의 혼합 속에서 단순 모방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최종적으로 이전의 성취를 능가해 경이로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B)의 결론 명제로 전체 글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었다.

38번은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와류 방출(vortex shedding)’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 설계 기법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주어진 문장은 와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을 교란시키려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후 구체적인 교란 방식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③번 이전까지는 와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 서술되고, ③번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해결책(설계 기법)이 제시되므로 문제 제기과 해결책의 전환점이 되는 ③번이 가장 적절한 위치이다.

39번은 과거 빨간색이 가졌던 압도적인 지위와 그것이 언어(어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인간이 빨간색을 통해 색채 범위를 다양화했으며 오래된 색채 용어가 이를 증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뒤이어 구체적인 어휘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지문 초반부의 ‘they’ 는 타 색상들을 지칭하지만, ③번 문장 직전에서 ‘humans(인간)’ 가 등장하므로 이러한 대명사의 지칭 대상 변화와 내용적 단서를 결합하여 논리적 단절을 찾아내는 능력이 정답 도출의 관건이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21번

21. 밑줄 친 the gho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In fact,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is so recent that the internet is older. In 1976 a zoologist named Donald Griffin published *The Question of Animal Awareness*, a book arguing that animal cognition ought to be taken seriously. He and a colleague had been responsible in 1944 for discovering that bats navigate by echolocation. Now,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he became convinced they had inner worlds. They had flexible behavior, he said, or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as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d, a hallmark of true intelligence. He'd watched bats develop clever techniques for finding food; they could clearly make decisions on the fly, and exhibited many of the same problem-solving abilities as humans did. Animal thought and reason ought to be seriously studied, he argued. After all, despite the flourishing of neuroscience, no one had yet found any part of the brain unique to humans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allowed "consciousness."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 hallow: 신성하게 하다

- ① the claim that animal consciousness should be studied
- ② the belief that consciousness is a quality exclusive to humans
- ③ the illusion that animals possess truly conscious inner worlds
- ④ the idea that human cognition is superior to that of animals
- ⑤ the concept that humans and animals are essentially alike

문항 및 지문 분석

문항 유형(배점)

- 함축 의미 추론 유형(3점)

소재

- 동물 의식 인정의 당위성과 인간 중심적 의식관 비판

전체 지문 분석

- 어휘 및 표현

- attribute: (성질 등이) 있다고 생각하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21번

- echolocation: 반향 위치 측정
- convinced: 확신하는
- on the fly: 대충 그때그때 봐 가며, 즉석에서

○ 전체 내용 요약

- 동물학자 도널드 그리핀은 동물의 인지 능력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쥐가 외부 환경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며 인간과 동일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어 동물에게도 내적 세계와 진정한 지능이 있음을 확신했다. 신경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의식을 담당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뇌 영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만이 의식을 독점한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 정답의 논거

- 밑줄 친 어구가 포함된 문장 전체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는 “이제 'the ghost'를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미로, 바로 앞 문장에서 "신경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존재하며 의식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맥상 버려야 할 대상인 'the ghost'는 ‘② the belief that consciousness is a quality exclusive to humans (의식이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성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 오답 분석

- 지문의 핵심 쟁점은 의식을 인간만의 고유한 전유물로 보는 통념의 비판으로, 인간과 동물의 인지 능력 중 누가 더 우월한지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④ the idea that human cognition is superior to that of animals (인간의 인지가 동물의 인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답이 될 수 없다.

○ 핵심 문장

- ... he became convinced they had inner worlds. They had flexible behavior, he said, or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as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d, a hallmark of true intelligence.

그는 그들(박쥐들)이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외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인 유연한 행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지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 After all, despite the flourishing of neuroscience, no one had yet found any part of the brain unique to humans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allowed “consciousness.”

결국, 신경과학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의식’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뇌의 어떤 부분도 발견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31. Ever since the early Enlightenment,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ave been closely related. Taken as near synonyms, their meaning is to maintain an object or system insofar as possible in its present state, to protect it from change, usually for contemplation, research, display, and perhaps for use. Conservationists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 emphasize conservation's restorative aspects — restoring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or a painting, or a dinosaur, or an ecosystem. Conservationists acknowledge change but try to manage it in order to prolong a(n) _____ state. Preservationists (who may nonetheless call themselves conservationists) think of themselves more as protectors. They sometimes criticize conservationists for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 as they would do. Preservationists would, for example, prefer to keep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as found” in a deteriorated state, for study, rather than to restore or repair it for display or use.

* contemplation: 주시(注視) ** deteriorate: 나쁘게 하다

- | | |
|------------|------------|
| ① desired | ② unstable |
| ③ isolated | ④ natural |
| ⑤ delicate | |

문항 및 지문 분석

문항 유형(배점)

- 빈칸 추론 유형(2점)

소재

- conservation(보전)과 preservation(보존)의 차이

전체 지문 분석

- 어휘 및 표현
 - Enlightenment: 계몽주의
 - preservation: 보존
 - conservation: 보전
 - synonym: 동의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31번

- restorative: 복원적인

- prolong: 연장하다

○ 전체 내용 요약

- ‘conservation(보전)’과 ‘preservation(보존)’은 대상이나 시스템을 가능한 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변화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유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conservationist(보전주의자)’는 복원적 측면을 강조하여, 가능한 한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preservationist(보존주의자)’는 개입을 최소화하여, 나빠진 상태일지라도 원래의 상태나 시스템을 간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정답의 논거

- 지문에서 ‘conservationist’는 복원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 예시로 역사적인 악기, 회화, 공룡, 생태계의 복원을 제시한다. 반면 ‘preservationist’는 원래의 상태나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간섭을 최소화하며, 역사적 악기가 악화된 상태일지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대조점은 '인간이 변화를 수용하고 관리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이다. ‘preservationist’가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채 자연스러운 원형을 지키려 한다면, ‘conservationist’는 인간이 전시나 연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상태'로 복원시키길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desired’가 들어가야 한다.

○ 오답 분석

- 많은 학생들이 ‘① desired’와 ‘④ natural’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conservationist’의 예시로 생태계가 나오며, 이들 또한 변화로부터 보호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자연을 ‘natural’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④ natural’을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문에서 ‘natural state’라고 한다면, ‘preservationist’가 대상을 발견한 그대로,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conservationist’가 원하는 상태이자 긍정적으로 희망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① desired(바람직한)’을 답으로 골라야 한다.

○ 핵심 문장

- Conservationists acknowledge change but try to manage it in order to prolong a desired state.

보전주의자는 변화를 인정하지만, 바람직한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그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 They sometimes criticize conservationists for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 as they would do.

그들(보존주의자들)은 때때로 보전주의자가 자신들처럼 원래의 사물이나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산출량이나 수확 또는 이용에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고 비판한다.



34.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is uppermost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whether he buys for himself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or it is acquiring nothing (beyond, that is,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a souvenir). 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as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has — at best —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In the last analysis,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is the collector's own act.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but the conviction that _____ . [3점]

* consensus: 합의 ** aesthetic: 미학의

- ①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 ② the artist behind the work is reliable
- ③ the art work tells the story of his time
- ④ his choice will lead to immediate profits
- ⑤ the originality of the work is unshakable

문항 및 지문 분석

문항 유형(배점)

- 빈칸 추론 유형(3점)

소재

- 예술 작품 수집가의 미학적 판단과 가치 변동 속에서 미래 확신

전체 지문 분석

- 어휘 및 표현
 - shifting: 가변적인
 - uppermost: 가장 우선적인
 - check: 수표
 - attain: 달성하다, 이루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34번

- validation: 확인

- in the last analysis: 결국

- affirm: 확인하다

- conviction: 확신

○ 전체 내용 요약

- 예술품의 가치와 현재의 미학적 합의는 미래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을 만큼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수집가가 작품을 매입하는 행위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믿고 예술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용기 있게 선언하는 일이다.

○ 정답의 논거

- 지문 전체에 걸쳐 미술 작품이 지닌 미학적 가치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가변적·유동적으로 변한다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비록 미술 작품이 가진 미학적 가치는 현재의 합의에 불과하며 미래에 바뀔 수 있지만, 수집가가 수표에 서명하여 작품을 매입하는 행위는 해당 작품이 미래에도 가치 있는 유의미한 지점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을 단언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빈칸이 포함된 마지막 문장은 글의 결론부에 해당하므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집가는 자신이 선택한 작품의 미래 가치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 가야 한다.

○ 오답 분석

- 많은 학생들이 '①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스스로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과 '③ the art work tells the story of his time(그 미술 작품이 자신의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품의 장점은 오직 현재의 합의에 불과하며, 이 합의는 미래에 거의 확실하게 뒤집히고 대체될 것"이라는 본문의 진술에 매료되어 많은 학생이 ③번을 선택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합의가 미래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본문 중반부('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에서 명시하듯 수집가는 미술사 전체에서 이 작품이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념을 표출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가치가 언제든 변할 수 있기에 수집가의 결정에는 'courageously(용기 있게)'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며, 그 용기의 바탕에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술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주관적 확신('conviction')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재에 머무르는 ③번은 오답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한다는 능동적 의미를 담은 ①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 핵심 문장

- 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as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수표에 서명함으로써, 수집가는 미술 전체에 의해 달성된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단언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34번

-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이러한 합의는, 과거에 다른 합의들이 그래왔듯이, 대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but the conviction that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그것(자신의 미학적 판단)이 어떤 근원으로 유래되었든, 자신의 미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용기 있게 확인한다.



37.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 spectacle works primarily within a cultural frame and is subject to prevailing modes of perception that observers bring to bear.

- (A) By extension, spectacle is produced by working with the grain of a particular culture, blending the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Thus anyone deploying spectacle may draw on a repertoire of techniques and conventions developed from previous festivals or related activities, but imitation is not enough.
- (B) Spectacle must also be spectacular. A spectacle has to amaze spectators, outdoing previous efforts if it is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ose who witnessed and participated in it.
- (C) In saying that, we stress that creation of spectacle is neither a universal nor even an inevitable expression of culture, but is a strategy *commonly* used by people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to address specific needs. The task of creating spectacle has been likened to creating new works of literature, where writers normally feel bound by the rules and traditions of their genre yet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to impress their audiences. [3점]

* prevailing: 주요한 ** deploy: 전개하다

문항 및 지문 분석

문항 유형(배점)

- 글의 순서 파악 유형(3점)

소재

- 구경거리의 속성과 창작 전략

전체 지문 분석

- 어휘 및 표현
 - spectacle: 구경거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37번

- be subject to: ~에 영향을 받다
- bring to bear: 적용하다
- in saying that: 그렇게 말함에 있어
- address: 해결하다
- bound: 얽매인
- by extension: 더 나아가
- grain: 결
- blend A with B: A를 B와 혼합하다
- established: 기존의
- spectacular: 장관인
- outdo: 능가하다
- effort: 시도

○ 전체 내용 요약

- 구경거리는 본능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문화적 틀 안에서 작동하며 관찰자의 지각 방식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구경거리는 기존 문화의 확립된 전통과 관습을 따르되 혁신적인 요소를 혼합해야 하며,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이전의 시도를 능가함으로써 관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도록 창작되어야 한다.

○ 정답의 논거

- 주어진 문장은 ‘구경거리는 문화적인 틀 안에서 작용하며 관찰자들의 주요한 지각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화두를 던진다. (C)에서 이러한 구경거리의 창조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전략임을 풀어 설명한 뒤, 이를 ‘새로운 문학 작품 창작’에 비유하며 논리를 구체화한다. 이어서 (A)의 시작부에 등장하는 연결사 ‘By extension(더 나아가)’을 활용하여, (C)에서 제시된 문학 작품 창작의 비유를 구경거리 창작의 방식으로 매끄럽게 확장하며 구경거리 역시, 기술의 레퍼토리를 활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모방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B)에서 모방을 넘어선 구경거리의 필수 조건으로, 이전의 노력을 능가하여 대중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Spectacle must also be spectacular(장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결론 명제를 통해 전체 글을 논리적으로 완결 짓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는 ‘④ (C)-(A)-(B)’이다.

○ 핵심 문장

- Thus anyone developing spectacle may draw on a repertoire of techniques and conventions developed from previous festivals or related activities, but imitation is not enough.
따라서 구경거리를 전개하는 누구든 이전의 축제나 관련 활동들로부터 발전된 기법과 관습의 레퍼토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A spectacle has to amaze spectators, outdoing previous efforts if it is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ose who witnessed and participated in it.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37번

구경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려면, 관객을 놀라게 하고 이전의 시도들을 능가해야만 한다.



기획	진로진학부장	유재원		
실무	교육연구사	박진근	교육연구사	김재곤
	교육연구사	이강현	교육연구사	김기현
	교육연구사	한윤옥	교육연구사	정재연
편집	파견교사	이현재	파견교사	이찬수
	파견교사	최대웅	대입지원관	정혜원
	대입지원관	신승수		
개발	충남외고	교사 맹형진	논산여고	교사 명수희
	국립공주대 사범대학부설고	교사 이종필	천안여고	교사 박태형
	금산고	교사 정진영	대천여고	교사 조아연

202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수영 영역별 분석

발행일	2026년 6월 15일(월)
발행인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김홍제
발행처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

※ 이 보고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